

의열사 (義烈祠)

충남
문화유산
42

지정번호_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114호

위 치_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산 3번지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는 조선 선비가 건립한 백제 충신의 사당, 의열사(義烈祠)가 자리하고 있다.

백제 멸망 후 왕족·군인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던 부흥운동. 660년 멸망 후 복신·도침·흑치상지 등이 중심이 되어 전개했다. 사비성이 함락된 후 달솔 흑치상지는 부하 10여명과 함께 임존성을 근거로 하여 10여 일 만에 3만여 군대를 모집하여 나당군을 공격하여 2백여 성을 회복했고 왕족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 잔존한 백제군을 수습하여 나당군에게 저항했다. 한때 사비성을 포위하여 점령군인 당군을 고립시키고 탈환직전까지 갔으나 신라의 구원에 의해 탈환하지 못했다. 사비성 탈환에 성공하지 못한 부흥군은 임존성과 주류성을 근거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다시 사비성 탈환을 준비했다. 나당군이 주류성을 공격했으나 백제부흥군에게 패하고 말았다.

662년 왕자 풍과 왜군 병력 170여 척이 무기와 군량을 싣고 도착하여 부흥운동은 활기를 띌 수 있었다. 그러나 복신과 도침 사이에 대립이 생겨 복신이 도침을 살해했다. 도침의 피살로 부흥군의 사기는 꺾였고, 다시 나당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다시 왕자 풍과 복신 사이에 불화가 생겨 풍이 복신을 살해했다. 나당연합군이 주류성을 공격하자 왕자 풍은 고구려로 도망가고, 왜군은 백강전투에서 패배했으며, 흑치상지는 당나라에 끌려감으로써 663년 9월 부흥운동은 끝을 맺었다.

900여년이 흐른 1575년(선조 8)에 이들의 충의가 후세에 전하여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한 부여 현감 홍가신(洪可臣, 1341-1615)은 백제의 성충·홍수·계백과 고려 후기의 충신 이존오를 위해 의열사(충남문화재자료 제114호)를 건립하였다. 이 일에 먼저 박수를 보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문수학했던 친구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이었다. 그런 인연으로 1581년 초여름에 홍문관 부제학으로 있던 서애 류성룡은 '나의 벗 홍흥도(洪興道, 홍가신의字)가 명을 받아 고을에 부임해 사당을 건립했다'고 의열사 기문을 썼다.

현재 이 사당은 고종 때 훼손된 이후 복원되어 1971년 현 남령공원인 부여읍 동남리 산 3번지로 옮겨지었는데 삼문(三門)과 9칸 맞배지붕의 건물에 이후 두 분의 선현을 추가해 현재는 모두 여섯 분을 배향하고 있다.

(자료제공 : 충남역사박물관)

